

住居環境이 高校生の 社會性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the Residential Variables on High School Students' Social personality

釜山大學校 家政大學 家庭管理學科

博士課程 盧 英 男

教 授 裴 玉 姬

Dept. Home Management, Pusan Natl. Univ.

Doctoral course; **Young-Nam, No**

Professor; **OK-Hee Bae**

<目 次>

I. 序 論

II. 理論의 背景 및 分析模型

III. 研究問題

IV. 研究方法

V. 研究結果

VI. 要約 및 結論

<Abstract>

This is a study to grasp the correlation between high school students' social personality and residential environment. The samples were 197 boys and 200 girls who were attending the high schools located in Pusan. Social personality which contains family relations and social relations was measured by the standardized test of K.T.C. The path-analysis was used to make the causal relations of the collected data clear.

The following results are to be noted.

1) Feeling on the residential environment underwent the most potent influence by the floor space per person and social personality by feeling on the residential environment.

2) For the boy-students, the family relations and social relations was affected by the case of renthouse, the family relations by the case of noisy residence, and the social relations by the case of no-private room.

3) For the girl-students, the cases of higher stories and having private room made the family relations unharmonious, the cases of narrow floor space per person and the single house made the social relations troublesome, too.

I. 序 論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家庭이라는 環境에 適應

하면서 成熟해가고, 그에 따라서 사람의 行動樣式이나 性格이 많은 영향을 받는다. 家庭의 環境은 心理的 環境과 物理的 環境으로 分類할 수 있으며 前者는 家族員間의 人間關係의 側面에서, 後者는

家族員이 생활하는 場 또는 空間의 側面에서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最近 家庭의 物理的 環境과 人間行動의 相互關係에 대한 環境心理學의 研究가 質的, 量的으로 많은 發展을 하여 注目を 받고 있다¹⁾. 특히 性格形成期에 있는 兒童의 住居生活에 대해서는 많은 關心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感情이 激動하기 쉽고 不安한 心理狀態에 놓여 있는 靑少年期가 家庭의 物理的 環境에 대해 가질 수 있는 滿足이나 不滿, 또 그것이 그들의 行動이나 性格에 미치는 영향도 소홀히 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靑少年들은 매일의 生活에서 많은 欲求不滿을 誘發하고 있으며, 住生活空間도 때로는 그러한 欲求不滿을 誘發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傳統的인 儒敎思想에 의한 家庭의 倫理化와 道德化는 住空間의 配置나 物理的인 住居條件의 充足이 子女中心의 으로 되는데 있어 沮害要因이었다고 할 수 있으며, 그러한 傾向은 오늘날의 住生活속에도 潜在해 있다고 생각된다. 本 研究는 이와 같은 住環境에 대하여 靑少年들이 갖는 不滿이나 感情이 그들의 社會性과 어떠한 因果의 關係가 있는가를 알아볼 필요성을 느끼고, 靑少年期를 代表할 수 있는 高校生들을 對象으로 하여 그들의 家族關係와 交友關係를 調査하고자 設計되었다. 研究의 結果는 靑少年의 바람직한 社會性의 形成과 住生活條件의 改善에 寄與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II. 理論的 背景 및 分析模型

1. 住環境과 人間

Lewin(1936)²⁾은 $B=f(L)$ 이라는 公式으로써 行動과 生活空間의 함수關係를 그의 場理論(Field Theory)을 통하여 설명하였다. 즉 生活空間은 특정한 時間에 특정한 心理的 環境속에 놓여있는 個人의 具體的인 行動을 이해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모든 重要한 것들을 包含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의 生活空間은 物理的 世界로 둘러싸여 있는 空間이다. Pahlbery(1969)³⁾는 建築을 人間과 環境의 相互作用으로 보면서 人間이 가지는 主要 屬性으로서 文化(Culture)와 性格(personality)을

들었다. Heimstra 등(1978)⁴⁾도 物理的인 모든 住居環境은 人間의 行動에 영향을 미치는 基本的인 環境이라고 하였고, 內田祥哉(尹鏞老譯, 1983)⁵⁾에 의하면, 環境心理學者인 Mehrabian 과 Russell 은 人間環境의 相互作用의 感情의 側面을 연구하고 感情의 價値있는 태도측정을 하였으며, 그 태도의 기초위에 環境에 대한 人間의 行動方向이 接近-回避(approach-avoidance)의 형태로 決定된다는 內容의 感情的 衝擊研究를 確立하였다. 이 環境心理學은 1970年代부터 組織的 研究로서 發展을 거듭해 왔으며, 物理的 環境과 人間의 利用行動사이에서 存在하는 다양한 相互作用 類型을 그 基本으로 하고 있다⁶⁾. 小林重順(延濟振譯, 1983)⁷⁾에 의하면 靑年의 欲求不滿의 原因이 모두 住生活空間에 있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欲求不滿을 유발시키는 住生活空間의 動機도 無視할 수 없다고 하였다. 홍경선(1980)⁸⁾, 洪享沃(1982)⁹⁾, 田耕培 등(1983)¹⁰⁾도 住居의 物理的 環境의 人間의 本質 또는 社會的 行動에 대한 깊은 關聯性을 밝혔다. 따라서 本 연구의 主要인 高校生들의 社會性도 住居의 物理的 環境에 의해 영향받을 것으로 充分히 豫想할 수 있겠다.

2. 住居變因과 社會性

일반적으로 社會性은 人間과 人間, 즉 自己와 他人과의 關係들 前提로 하여 出發하며 연속적 누적적으로 發達한다¹¹⁾. 靑年期는 때때로 不安定感을 경험한다. 즉 靑年은 家庭環境과 學校環境에서 欲求에 대한 障壁을 發見하게 된다¹²⁾. 따라서 本 연구에서는 靑年의 社會性을 家族關係와 交友關係의 側面에서 조사하기로 하였다. 또 Lewin(1936)¹³⁾에 의하면, 靑年은 生活空間의 分化程度나 벽의 두께정도, 자유로이 이동할 수 있는 領域의 넓이나 明確性 등의 모든 점에서 兒童이나 成人과는 다르다¹⁴⁾고 하였고 Wilner 등(1962)¹⁴⁾은 住居條件이 向上되면 家族員間의 긴장이 완화되고 서로의 維帶感을 높일 수 있으며, 슬럼환경은 健全한 個人性, 家族關係 및 社會性과 近隣性을 抑制한다고 하였다. Keiser(1978)¹⁵⁾는 住居狀況이 人間關係를 容易하게 할 수도 혹은 惡化시킬 수도 있다고 하였다. 金在恩(1981)¹⁶⁾은 家族員間의 doorway(door)에

의한 空間隔離은 家族間의 따뜻한 情의 交流 및 活潑한 對話를 어렵게 한다고 하였으며, 金瓊姬(1981)¹⁷⁾도 最近 研究의 根本的인 問題點은 폐쇄한 住居의 要求條件이 兒童의 社會性 發達에 重要한 影響을 미치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Speare(1974)¹⁸⁾는 住居滿足과 移動性에 관한 研究에서 住居密度, 居住期間, 住宅所有形態, 住居地域 등의 住居變因들을 채택하여 밀도가 높을수록, 借家일수록, 거주기간이 길수록 주거만족도는 감소하였고 이동성에 직접적, 간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러한 住居變因들은 青年들의 家族關係나 交友關係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Hole(1959)¹⁹⁾은 密集된 住宅에서 살다가 私生活이 보장될 수 있는 住宅으로 옮겼을 때 對人關係에서 긴장감이 감소되었다고 밝혔다. 小平久(1983)²⁰⁾는 초고층아파트의 어린이는 밖에서 노는 行動半徑의 감소가 큰 문제라고 하여 住宅類型과 社會性과의 관계를 밝혔다. 高明奎(1979)²¹⁾는 가정 생활에 대한 男女高校生들의 고민 中 첫번째가 혼자 쓰는 房이 없는 것이라 하고, 個室을 원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로서 친구와 자유롭게 놀고 이야기 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만의 世界를 갖고싶어서라고 하였다. 張秉林(1979)²²⁾은 青年의 社會的 孤立的 原因의 하나가 자주 轉居하는 것이라 하여 青年의 社會性과 居住期間의 有關性을 밝혔다. 住居生活時間은 先行研究에서 사용된 흔적은 별로 없으나,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현실을 고려하여 지나치게 짧은 가정생활시간이 社會性에 관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또 住環境에 대한 感情變因은 다른 住居變因들에 의해서 變化할 뿐 아니라 獨自的으로 高校生의 社會性—家族關係와 交友

關係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어 媒介變因으로 定하였다.

3. 分析模型

洪享沃(1982)²³⁾은 人間과 住居의 因果關係는 行動→態度→住居價値觀→一般價値觀의 형태로 규명되어야 한다고 하였고, 內田祥哉(尹鏞老譯, 1983)²⁴⁾는 環境→感情→行動의 關係로서 그 因果性을 밝혀야한다고 보았다. 이 理論에 根據를 두고 住居變因들과 高校生들의 社會性間的 因果關係를 밝히기 위한 分析模型을 [그림 1]과 같이 設定하였다.

Ⅲ. 研究問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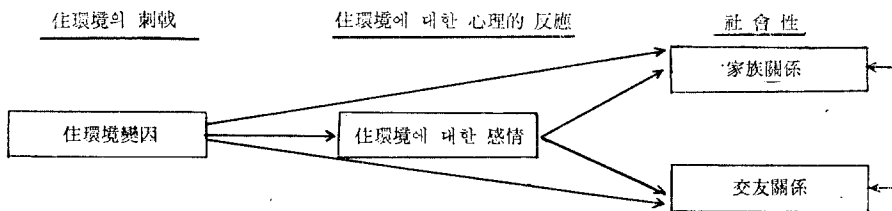
위의 理論的 分析模型을 토대로 하여 本 研究에서 밝히고자 하는 研究問題를 다음과 같이 定하였다.

- 1) 男女高校生들의 家族關係와 交友關係는 일반적으로 어떤 傾向을 보이는가?
- 2) 男高生들의 住環境에 대한 감정 및 家族關係와 交友關係는 어떤 종류의 住居變因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가? 또한 그 영향은 어느 정도인가?
- 3) 女高生들의 住環境에 대한 感情 및 家族關係와 交友關係는 어떤 종류의 住居變因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가? 또한 그 영향은 어느 정도인가?

Ⅳ. 研究方法

1. 研究對象 및 資料蒐集

研究對象은 부산시내 所在 4個校(男女各 2個校)



[그림 1] 理論的 分析模型

〈表 1〉 질문지 배부 및 회수상황

구분	배부	회수	제외*	채택
人 文 系	120	118	14	104
	120	118	14	104
實 業 系	60	56	6	50
	60	58	7	51
고층아파트단지 (人文系)	60	50	7	43
	60	56	11	45
計	240	224	27	197
	240	232	32	200

- 1) 윗줄의 숫자는 남자, 아랫줄은 여자의 것임.
 2) *답안지에 무응답이 있는 것, 성격진단 검사의 타당도 점수가 6 이상인 것(즉 응답에 거짓이 많은 것), 기타 실빙성이 적은 것 등.

의 人文系 및 2個校(男女 各 1個校)의 實業系 高等學校에 在學中인 2學年 學生들 397名으로 하였다. 標本學級數는 母父들의 經濟的 地位를 고려하여 人文系와 實業系의 比率를 2:1로 하였고, 人文系의 경우는 段階的 集落標集方法으로, 實業系의 경우는 임의선정하였다. 標本學校들의 조사대상자들 중 아파트 居住者들의 比率이 매우 낮아서 고층아파트단지 근처의 2개 人文系 高校(男女 各 1個校)도 추가로 포함시켰다.

조사시기는 1985년 5월 3일~17일이었으며 질문지의 배부 및 회수상황은 〈表 1〉에 나타낸 것과 같았다.

2. 變因의 測定

本 研究는 質問紙를 측정도구로 하였으며, 各 變因別 측정 및 부호화는 〈表 2〉와 같이 하였다. 〈表 2〉에 제시된 住居變因들 外에 個室使用期間과 室共同使用人數의 변인도 포함하였으나, 一次 變因間의 相關關係 分析結果 各 各 個室소유 및 1인당 住居面積 變因과의 多共線性(multicollinearity, $r=.70$ 이상)이 밝혀져 二次分析에서 제외시켰다.

3. 資料의 分析

各 各의 住居變因들과 社會性과의 단순관계 및 용

〈表 2〉 變因의 測定 및 符號化

變 因	測定 및 符號化 方法
住居所有形態	1=自家, 0=賃借家
住 居 類 型	세대수의 密度와 高層化를 고려
1인당住居面積	주택평수/가족수(同居人 포함)로 계산
住 居 地 域*	1=주택가, 0=주택가 외의 지역
個 室 所 有	獨房을 쓰는 가의 여부를 1=有, 0=無
居 住 期 間	現居住地에서 계속 살아온 年數
住居生活時間	하루에 집에서 가족과 生活하는 時間
住環境에 대**	語義微分法을 사용한 7점 척도. 문 한 感情
家族關係및***	標準化된 「性格診斷檢査」를 사용하 交友關係
	여 측정, 응답자가 얻은 원점수를 백분위 점수로 환산하여 최하 1점 에서 최고 99점 사이의 점수를 사 용함.

* 실제 測定은 騒音의 정도를 고려하여 1=교외
2=주택가, 3=상가, 4=유흥가, 5=공장지대
로 측정하였고, 1과 2를 1로, 3과 4와 5는 0
으로 재분류하였음.

** 12개의 항목은 住居에 대한 心理的 評價 7문항,
力能的評價 3문항, 活動的 評價 2문항으로써
先行研究^{31~33)}를 참조하여 구성하였음. 이 변
인은 점수가 높을수록 住居環境에 대한 심리적
갈등이 크고 불만이 높으며 감정이 나쁜 정도
가 심함을 의미함.

*** 이 검사³⁴⁾는 총 288문항으로 구성되었고 ①社
會性 I (家族關係), ② 社會性 II (交友關係), ③
對應性, ④ 適應性, ⑤ 明朗性, ⑥ 情緒安定,
⑦ 指導性的의 7가지 성격진단이 가능하며, 검
사 결과 중 ①과 ②의 점수를 채택하여 본 연
구 자료로 사용하였음.

이 변인은 점수가 높을수록 다음의 性格을 더
많이 나타냄.
家族關係=원만하지 못한 부모, 자녀, 형제관
계. 가족간의 편견과 적대감. 집에 들어가기
를 좋아하지 않음. 때때로 가출을 생각함.
交友關係=미숙한 社會性. 집단내에서 고립되
고 우울함. 말하기를 꺼려하고 非社交的임.
다른 사람과 함께 있으면 不便하고 집단활
동에 참여하기를 좋아하지 않음.

〈表 3〉 研究對象者들의 變因別 分布

變 因	男 子		女 子		全 體	
	f	%	f	%	f	%
주거소유형태						
① 自 家	147	74.6	153	76.5	300	75.6
② 賃 借 家	50	25.4	47	23.5	97	24.4
주거유형						
① 단독주택	118	59.9	118	59.0	236	59.4
② 5층 이하 Apt.	62	31.5	72	36.0	134	33.8
③ 6층 이상 Apt.	17	8.6	10	5.0	27	6.8
1인당 주거면적						
① 10㎡이상	14	7.1	18	9.0	32	8.1
② 8~10㎡미만	12	6.1	22	11.0	34	8.6
③ 6~ 8㎡미만	47	23.9	45	22.5	92	23.2
④ 4~ 6㎡미만	80	40.6	84	42.0	164	41.3
⑤ 4㎡미만	44	22.3	31	15.5	75	18.8
주거지역						
① 주택가	167	84.8	175	87.5	342	86.1
② 주택가외의지역	30	15.2	25	12.5	55	13.9
個室소유						
① 有	79	40.1	67	33.5	146	36.8
② 無	118	59.9	133	66.5	251	63.2
거주기간						
① 10년이상	47	23.9	37	18.5	84	21.2
② 7~10년미만	20	10.1	21	10.5	41	10.3
③ 4~ 7년미만	47	23.9	53	26.5	100	25.2
④ 1~ 4년미만	52	26.4	70	35.0	122	30.7
⑤ 1년미만	31	15.7	19	9.5	50	12.6
주거생활시간						
① 11시간이상	26	13.2	26	13.0	52	13.1
② 10~11시간미만	30	15.2	39	19.5	69	17.4
③ 9~10시간미만	33	16.8	31	15.5	64	16.1
④ 7~ 8시간미만	63	32.0	64	32.0	127	32.0
⑤ 7시간미만	45	22.8	40	20.0	85	21.4
計	197	100.0	200	100.0	397	100.0

〈表 4〉 社會性變因과 住居變因들간의 관계(교차표 분석 결과)

變 因	家 族 關 係			交 友 關 係		
	df	χ^2	Gamma	df	χ^2	Gamma
주거 소유 형태	2	2.42	.110†	2	4.61	.153
	2	20.28***	.310	2	19.72***	.314
주거 유형	4	7.20	.194	4	3.78	-.188
	4	7.19	-.094	4	1.68	-.076
1인당 주거 면적	8	20.83**	.378	8	12.28	.260
	8	34.25***	.508	8	17.72*	.207
주거 지역	2	3.24	.128†	2	0.53	.052
	2	12.70**	.248	2	2.39	.109
個室 소유	2	1.40	.084†	2	0.88	.067
	2	3.04	.123	2	9.36**	.216
거주 기간	8	6.31	.054	8	19.31*	-.124
	8	8.79	.055	8	7.46	.088
주거 생활 시간	4	7.56	-.020	4	2.37	-.048
	4	13.30**	.305	4	2.24	-.097
주환경에 대한 감정	4	61.95***	.829	4	3.20	.175
	4	57.34***	.734	4	24.27***	.510

1) * $p < .05$ ** $p < .01$ *** $p < .001$

2) † 이 변인들은 名目變인들이므로 Gamma 대신 Cramer's V 를 적용하였음.

3) 계수의 윗줄은 남자(N=197), 아랫줄은 여자(N=200)의 것임.

4) 家族關係와 交友關係 점수를 上=71점이상, 中=40~70점, 下=39점 이하로 재분류하였음. (家族關係의 평균 점수 54점과 交友關係의 평균 점수 47점을 기준으로 하여 빈도수가 고르게 되도록 분류함)

5) 주환경에 대한 감정 점수를 上=51점이상, 中=30~50점, 下=29점 이하로 재분류하였음(住環境에 대한 감정의 평균점수인 39점을 기준으로하여 빈도수가 고르게 되도록 분류함)

6) 주거생활시간은 1=10시간이상, 2=8~10시간미만, 3=8시간 미만으로 재분류 하였음.

〈表 5〉 交友關係와 居住期間(男子)

交友關係	居 住 期 間(%)					計(N)
	10년이상	7~10년미만	4~7년미만	1~4년미만	1년미만	
上	40.4	25.0	17.0	17.3	29.0	25.4(50)
中	27.7	45.0	25.5	25.0	41.9	30.5(60)
下	31.9	30.0	57.5	57.7	29.0	44.1(87)
計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47	20	47	52	31	197

df=8 $\chi^2=19.31^*$ Gamma=-.124

답자 분포는 교차표분석을 통한 χ^2 검증을 하였고, 그 관련강도를 Gamma와 Cramer's V로 검증하였다. 住環境에 대한 感情, 家族關係 및 交友關係에 영향을 주는 住居變因은 중다회귀분석을, 理論的 分析模型에는 經路分析을 적용하였다. 이를 위해서 住居變因들 중 名目變因인 주거소유형태, 주거지역, 개실소유변인은 模造變因(dummy variables)으로 전환하였고 필요한통 계분석은 SPSS를 이용하였다.

V. 研究結果

1. 研究對象者의 變因別 分布

研究對象者들의 變因別 分布狀況은 男女別로 <表 3>에 제시했다.

2. 社會性과 住居變因들의 단순관계

<表 4>는 社會性과 住居變因들의 교차표분석을 통한 有意性(χ^2)과 關聯性(Gamma 값)을 검증한 결과이다. 男女 대부분의 경우 社會性變因들과 住居變因들 사이에 線型的 關係를 보였으나 男高生들의 거주기간과 주거생활시간만이 曲線的 關係*(curvilinearity)를 보였고 그 중 交友關係에 대한 居住期間의 관계만이 $p < .05$ 수준에서 有意의이었다<表 5>. 거주기간이 너무 길거나 짧은 것은 男高生の 원만한 交友關係에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peare(1974)²⁶⁾의 研究에서 住居滿足도와 移動性에 대한 거주기간의 관계가 曲線的의어서 log scale화 했다고 밝힌 것과 동일한 결과였다.

男高生들의 家族關係에 $p < .05$ 수준 이하에서 有意의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住環境에 대한 感情과 1인당 住居面積으로서 각각 $\text{Gamma} = .829$ 와 $.378$ 로 매우 높은 관련성을 보였다. 이 두 변인은 모두 線型的 關係를 보였으므로 住環境에 대한 감정이 나쁠수록, 1인당 住居面積이 좁을수록 家族關係가 원만하지 못하다고 볼 수 있겠다.

女高生들의 家族關係에 대해서는 住環境에 대한

* 이것은 중다회귀 분석을 위해 log scale로 전환해야 한다. (계급근, 승수 전환도 가능함)

感情, 주거소유형태, 1인당 주거면적, 주거지역, 주거생활시간등이 $p < .01$ 수준 이하에서 有意的이었다. 관련성도 모두 ($\text{Gamma} = .248$ 이상으로 다소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男高生들의 交友關係에는 거주기간이 $p < .05$ 수준에서 有意的이었으나, 관련성은 오히려 1인당 주거면적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text{Gamma} = .260$)

女高生들의 交友關係는 住環境에 대한 感情, 주거소유형태, 개실소유, 1인당 주거면적이고, 모두 선형적관계를 보였으므로 住環境에 대한 感情이 나쁠수록, 賃借家일수록, 個室이 없을 때, 1인당 주거면적이 좁을수록 交友關係가 원만치 못한 경향을 보였으며 그 관련성도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text{Gamma} = .207$ 이상).

이상의 교차표분석에서 살펴본 결과 대체로 여 고생들이 남고생들보다 그들의 社會性에 더 많은 종류의 住居變因들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다소 家庭經濟的이며 物質的 性格을 가진 住居變因들에 의해 강하게 관련되어 있음이 밝혀졌다.

3. 變因들간의 相關關係

<表 6>에는 본 연구에 사용된 모든 變因들간의 相關關係를 알아보기 위한 單純相關係數와 평균 및 표준편차가 제시되어 있다. 각 독립변인들(1-7)간의 相關係數中 가장 높은 것이 $r = .379$ 로서 多共線性的 위험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p < .05$ 수준 이하에서 有意的인 독립변인들간의 關係는, 주거소유형태와 1인당 주거면적(負的關係), 個室所有(正的), 거주기간(質的)이 관계가 있었고, 또 주거유형과 거주기간(正的), 1인당 주거면적과 個室소유(負的)가 관계가 있었다. 즉 賃借家일 때 1인당 주거면적이 좁고 個室이 없으며 거주기간이 짧았다. 또 고층아파트일수록 거주기간이 짧았다. Michelson(1980)²⁹⁾이 고층아파트 거주자들이 단독주택 거주자들보다 3배나 높은 이동성을 보였다고 밝혔던 결과와 일치했다.

家族關係와 住環境에 대한 感情과의 相關關係는 男女 각 $r = .658$ 과 $r = .603$ 의 正的關係로서 매우 높은 결과이며 이는 교차표분석 결과와도 同一했다.

〈表 6〉 변인들간의 상관계수, 평균 표준편차.

	1	2	3	4	5	6	7	8	9	10
1. 주거소유형태	1.000									
2. 주거유형	.088 .147*	1.000 1.000								
3. 1인당주거면적	-.319*** -.226***	.123* -.085	1.000 1.000							
4. 주거지역	.073 .081	.087 .034	-.116 -.159*	1.000 1.000						
5. 個室소유	.266*** .165***	.024 .161*	-.298*** -.269***	.008 .000	1.000 1.000					
6. 거주기간주	-.299*** -.317***	.379*** .313***	.110 .111	.064 -.106	-.088 .064	1.000 1.000				
7. 주거생활시간	-.014 .036	.008 .243***	.039 .051	-.074 .024	-.034 -.103	.047 .042	1.000 1.000			
8. 주거환경에 대한 감정	-.380*** -.229***	-.104 -.083	.541*** .546***	-.259*** -.212**	-.236*** -.160**	.030 .080	.134* -.030	1.000 1.000		
9. 가족관계	-.336*** -.129*	-.047 .056	.398*** .287***	-.284*** -.124*	-.183** .008	.084 .120*	.178** -.011	.658*** .603***	1.000 1.000	
10. 교우관계	-.241*** -.056	-.046 -.198**	.207** .247***	-.058 .025	-.194** -.051	.034 -.097	.020 -.050	.366*** .242***	.288*** .175**	1.000 1.000
평 균	.761 .750	1.457 1.485	3.447 3.650	.873 .850	.330 .400	3.051 3.015	3.264 3.345	36.102 38.025	54.838 53.785	50.376 44.290
표준편차	.427 .434	.601 .650	1.162 1.102	.334 .358	.471 .491	1.265 1.398	1.325 1.355	13.492 11.556	29.259 29.342	31.218 29.220

1) * $p < .05$ ** $p < .01$ *** $p < .001$

2) 제수의 외할은 남자(N=197), 아랫할은 여자(N=200)의 것임.

〈表 7〉 住環境에 대한 感情과 社會性에 대한 중다회귀 분석

變 因	주환경에 대한 감정		家 族 關 係		交 友 關 係	
	b	β	b	β	b	β
주거소유형태	-6.696	-.212**	-6.126	-.090*	-7.793	-.107*
	-2.882	-.108*	-.200	-.003	.487	.007
주거유형	-2.493	-.111*	.495	.010	.427	.008
	-.104	-.001	3.598	.080*	-6.990	-.155*
1인당 주거면적	5.284	.455***	1.116	.044	-.822	-.031
	5.283	.504***	-.972	-.037	4.860	.183***
주거지역	-6.897	-.171**	-11.022	-.126*	2.973	.032
	-3.992	-.124*	.633	.008	6.987	.086
개실소유	-1.147	-.040	-.527	-.009	-6.541	-.099*
	-.244	-.010	5.118	.086*	3.070	.052
거주기간†	-.415	-.039	.805	.035	-.419	-.017
	-.169	-.021	.893	.043	-1.532	-.073
주거생활시간‡	1.035	.102*	1.969	.089*	-.590	-.025
	-.420	-.049	-.377	-.002	-.237	-.011
주환경에 대한 감정			1.201	.554***	.767	.332***
			1.626	.640***	.412	.163***
R ²	.404***		.468***		.157***	
	.328***		.385***		.122***	

1) *p<.05 **p<.01 ***p<.001

2) 윗줄은 남자(N=197), 아랫줄은 여자(N=200)의 계수임.

3) †교차표 분석결과 곡선적 관계를 나타냈으므로 log scale로 전환하여 사용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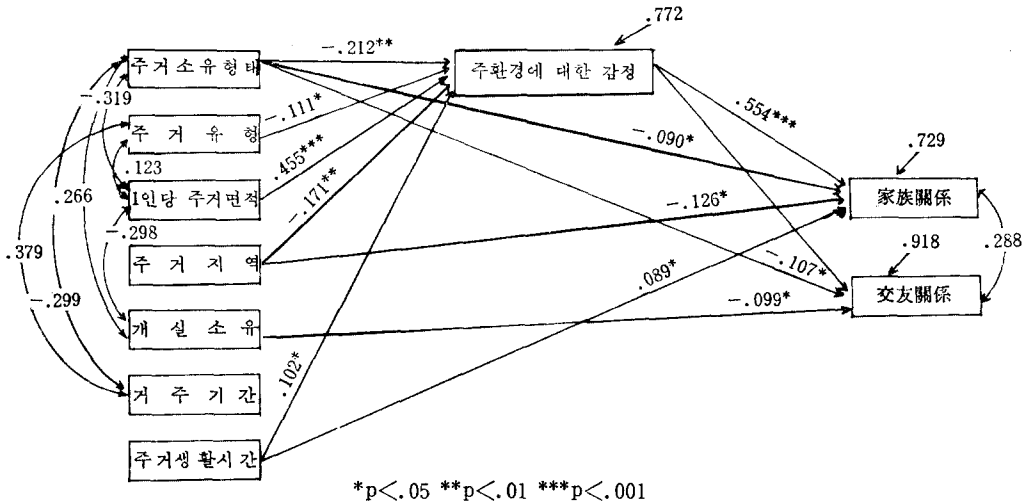
한편 住環境에 대한 感情과 家族關係 및 交友關係의 평균치를 살펴보면 住環境에 대한 感情과 家族關係는 男女問의 差異가 거의 없었으나, 交友關係는 男高生들의 점수가 女高生들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즉 평균적으로 볼 때 男高生들의 交友關係가 女高生들보다 원만치 못한 경향을 보였으며 女高生들은 안정된 경향을 보였다.

4. 理論的 分析模型에 의한 중다회귀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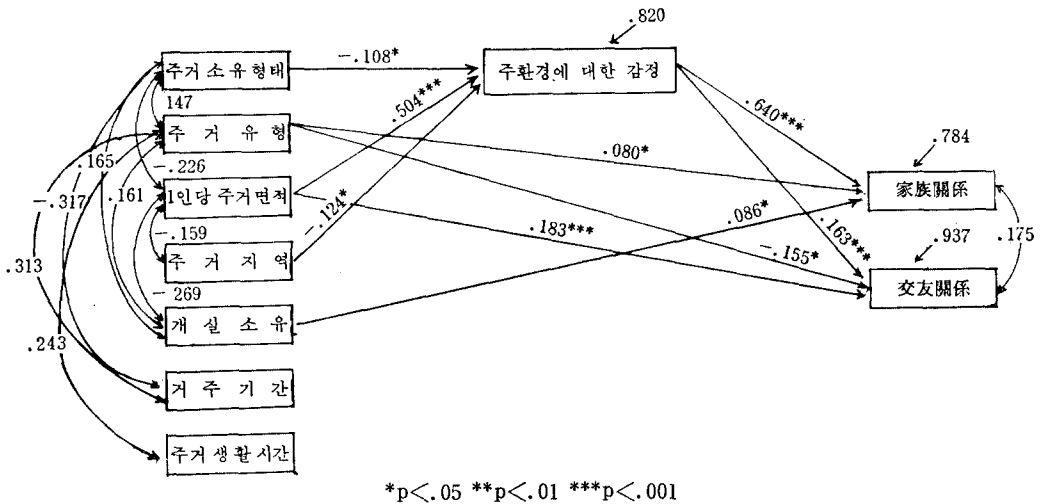
本 研究의 理論的 分析模型에 따라 住環境에 대한 感情 및 社會性변인에 대하여 중다회귀분석을 한 결과가 〈表 7〉에 나타나 있고, p<.05수준 이하에서 有意의인 經路係數만 모아 因果的 模型으로 도식화한 것이 [그림 2], [그림 3]이다.

1) 男高生들의 因果模型分析

먼저 住環境에 대한 感情을 직접적으로 決定하는 住居變因들을 영향력의 相對的 크기대로 살펴 보면, 1인당 주거면적(β =.455), 주거소유형태, 주거지역, 주거유형, 주거생활시간이다. 그러므로 1인당 주거면적이 줄수록, 賃借家일수록, 소음이 심한 住居地域일수록, 단독주택일수록, 주거생활 시간이 짧을수록, 주환경에 대한 感情은 나빠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유형은 단순상관관계에서는 有意的이지 못했으나 다른 자기변인들을 統制한 후 두 변인의 관계는 p<.05 수준에서 有意的이었다. 個室소유변인은 이와 정반대의 현상을 보였다. 전체 住居變因들에 의해서 住環境에 대한 감정은 40.4%가 설명되고 있어 매우 有意的이었다(p<



[그림 2] 社會性에 대한 經路分析(男子)



[그림 3] 社會性에 대한 經路分析(女子)

.001)
 男高生들의 家族關係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有意的인 변인들은 住環境에 대한 感情($\beta=.554$), 주거지역, 주거소유형태, 주거생활시간이다. 즉 住環境에 대한 感情이 나쁠수록, 주거지역이 조용하지 못할수록, 賃借家일수록, 住居生活時間이 짧을수록 家族關係가 원만하지 못하며 총 說明된 분량도 46.8%로서 매우 有意的이었다($p<.001$). 住環境에 대한 感情은 家族關係에 대하여 가장 큰 영

향을 미치면서 다른 주거변인들의 영향을 받아서 다시 家族關係에 기여하는 媒介의 役割도 하였다. 그러므로 주거유형과 1인당 주거면적은 男高生들의 家族關係에 대하여 직접적인 영향은 미치지 못하나 住環境에 대한 感情을 통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겠다.
 한편 男高生들의 交友關係에 대하여 $p<.05$ 수준 이하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은 住環境에 대한 感情($\beta=.332$), 주거소유형태, 그리

고 個室所有의 순서였다. 즉 住環境에 대한 感情이 나쁠수록, 賃借家일수록, 個室이 없을수록 交友關係에 지장이 있으며, 총 설명분량도 15.7%로서 家族關係보다는 다소 분량이 적었으나 $p < .001$ 수준에서 有意的이었다. 특히 個室이 없을 때 交友關係가 원만치 못하다는 결과는 靑少年들이 個室을 원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친구와 자유롭게 놀고 이야기 하기 위해서라고 한 高明奎의 보고²⁷⁾와 일치했다. 단순상관관계와 교차표분석에서 매우 有意的이었던 1인당 주거면적은 회귀분석 결과 그 有意性이 없어졌다. 주거소유 형태는 住環境에 대한 感情과 社會性에 모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自宅所有에 대한 成人들의 강한 執念과 賃借家일 때 나타내는 의연치 못한 자세가 子女들에게도 心理的인 강한 暗示를 주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겠다.

2) 女高生들의 因果模型分析

女高生들의 住環境에 대한 感情은 1인당 주거면적($\beta = .504$), 주거지역, 주거소유형태의 순서로 有意的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1인당 주거면적이 좁을수록, 소음이 심한 주거지역일수록, 賃借家일수록 住環境에 대한 감정이 나빠진다고 할 수 있겠다. 住居變因들에 의해 설명되는 분량은 40.4%로서 대단히 有意的이었다($p < .001$)

女高生들의 家族關係에 대해 $p < .05$ 수준 이하에서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住環境에 대한 感情($\beta = .640$), 個室소유($\beta = .086$), 住居類型의 순서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住環境에 대한 感情이 나쁠수록, 個室이 있을 때, 高層化된 아파트일수록 家族關係가 疎遠하고 원만치 못하다고 할 수 있겠다. 住居變因들에 의해 설명되는 분량도 38.5%로서 매우 有意的이었다($p < .001$).

女高生들의 交友關係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변인들은 1인당 주거면적($\beta = .183$)이었고, 그 다음이 住環境에 대한 感情($\beta = .163$)과 住居類型($\beta = -.155$)이었다. 따라서 1인당 주거면적이 좁을수록, 住環境에 대한 感情이 나쁠수록, 단독주택일수록 交友關係가 원만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住居變因들에 의해 12.2%가 설명되었다($p < .001$).

이상의 分析에서 女高生들은 個室이 있을수록,

주거유형이 高層化된 아파트일수록 가족관계는 원만하지 않으나 交友關係는 잘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個室이 없을 때 家族關係가 원만하지 못한 결과는, 個室이 없는 中學生의 家族모임 시간이 1日 2시간 20분이고, 個室이 있는 학생은 1시간 50분으로서, 個室이 있을 때 오히려 가족단란의 기회가 적어진다고 밝힌 小平久(1983)의 보고와 같았으며, 또한 高層化된 아파트의 경우, 高層住宅 居住者일수록 家族結束感이 缺如되었다는 金瓊姬(1979)²⁹⁾의 의견과 같은 것이었다.

이는, 우리나라의 현실로 보아 高層化된 아파트는 경제적 능력이 있어야 거주할 수 있고 대체로 평수도 넓으므로 個室확립이 용이한 편이나 家族間의 空間隔離가 심하여 家族關係는 원만하지 못하고 利己的인 경향일 것이지만, 交友關係에서는 家庭의 經濟的 能力을 전제로 하여 여유있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예측된다.

VI. 要約 및 結論

本 研究은 人間과 環境의 關係가, 環境의 特性을 人間의 性格評價와 같이 평가하므로써 파악될 수 있다는 理論³⁰⁾을 근거로 하여 高校生들의 社會性과 그들의 住居環境의 特性을 測定해서 그 相互關係를 파악하고자 設計되었다.

研究對象은 부산시내 男女高校生 397名으로 하였고 質問紙를 이용하여 조사하되 社會性은 標準化된 性格診斷檢査를 이용하여 測定하였다. 資料의 分析은 理論的 分析模型에 따라 중다회귀분석을 통하여 因果的으로 행해졌다. 그 결과 얻어진 結論 中에서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적으로 볼 때 高校生들의 家族關係와 交友關係는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女高生들이 男高生들보다 더 원만한 交우關係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男女高校生들의 住環境에 대한 感情은 1인당 주거면적이 좁을 때 가장 큰 영향을 받으며($\beta = \text{男} .445, \text{女} .504$), 그 다음은 住居地域이 소음이 많을 때($\beta = \text{男} -.171, \text{女} -.124$)와 賃借家일 때($\beta = \text{男} -.212, \text{女} -.108$) 感情이 나빠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3) 男女高校生들의 家族關係와 交友關係에 가장 決定的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住環境에 대한 感情인 것으로 나타났다(家族關係: $\beta = \text{男}.554, \text{女}.640$, 交友關係: $\beta = \text{男}.332, \text{女}.163$).

4) 住居象因들 간의 관계에서 賃借家 형태는 1인당 주거면적이 좁을때와 個室이 없을때 및 居住期間이 짧을때와 상관관계가 깊었고, 고층아파트 주거유형은 거주기간이 짧은 것과 관계가 깊었다.

5) 男高生들은 住居가 賃借家일수록 家族關係와 交友關係가 원만하지 못하였다($\beta = -.090, \beta = -.107$).

6) 女高生들은 高層化된 아파트일수록 家族關係가 원만하지 못하였고 단독주택일수록 交友關係가 원만하지 못하였다($\beta = .080, \beta = -.155$).

7) 1인당 주거면적이 좁을수록 女高生들의 交友關係가 원만하지 못하였다($\beta = .183$).

8) 주택가가 아닌, 소음이 심한 주거지역일수록 男高生들의 家族關係가 원만하지 못하였다($\beta = -.126$).

9) 個室이 없을수록 男高生들의 交友關係에 지장이 있었고 個室이 있을수록 女高生들의 家族關係에 지장이 있었다($\beta = -.099, \beta = .086$).

10) 住居生活時間이 짧을수록 男高生들의 家族關係가 원만하지 못하였다($\beta = .089$).

11) 거주기간과 住居生活時間은 교차표분석을 통한 단순관계 검증에서 社會的 性格變因들과 曲線的 關係를 보였다. 즉 거주기간과 주거생활시간이 너무 짧거나 긴 것은 家族關係와 交友關係에 지장을 주는 경향을 보였다.

12) 家族關係에 대한 住居變因들의 설명량은 男: 46.8%, 女: 38.5%로서 매우 유의적이었으므로, 住居環境과 家族關係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고 交友關係에 대해서도 有意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밝혀졌다.

이상의 結果를 볼 때 高校生들의 社會性은 住環境에 의해 큰 영향을 받고 있음이 確認되었다. 따라서 本 研究의 意義도 더 커지게 되었다. 本 研究에서는 標準化된 성격검사를 사용하여 性格測定上 문제는 없으나, 많은 문항수로 인하여 주거변인들 외에 他變因들의 영향이 고려되지 않았고, 또 조사시 학교별 측정시간이 동일하지 않았던 문제

점, 조사지역의 한정등으로 標本의 代表性이 缺如된 문제점도 있었다. 이와 같은 점들을 보완하여 많은 연구가 계속된다면 원만한 人間生活을 위한 確立한 住生活 確立에 보다 많은 寄與를 할 것으로 생각된다.

參 考 文 獻

1. 內田祥哉, 尹鏞老譯, 建築의 環境心理, 서울, 技文堂, 1983, pp.231~234.
2. C.S. Hall, & G. Lindzey, *Theories of Personality*, 3rd. Edt., John Wiley & Sons, New York, Santa Barbara Chichester Brisbane Toronto, 1978, Chapter 11.
3. Richard E. Pahlbery, *Houseform and culture*, Prentice-Hall Inc. Englewood Cliffs. N.J. 1969, p. 13.
4. N.W. Heimstra, et. al., *Environmental Psychology*, 2nd. Edt., Brook/cole Publishing Co. Monterey California, 1978, p. 89.
5. 內田祥哉, 前掲書, p.278.
6. *Ibid*; p.233.
7. 小林重順, 延濟振譯, 建築의 環境心理, 서울, 技文堂, 1983, p.26.
8. 홍경선, 도시집합주거의 環境心理學的 考察,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0.
9. 洪享沃, 住居의 大間學的 意味, 대한가정학회지, 20권 2호, 1982.6, pp.127~134.
10. 田耕培, 尹忠烈, 住宅計劃論, 서울, 산업도서출판사, 1983, p.8.
11. 張秉琳, 青年心理學, 서울, 法文社, 1979, p.122.
12. *Ibid*, pp.123~124.
13. C.S. Hall, & G. Lindzey, *op.cit.*, Chapter 11.
14. Daniel M. Wilner, et. al., *The Housing Environment and Family Life*, The Johns Hopkins, 1962, 1981, (이중혜, 주택내 生活空間에 관한 研究,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1, 재인용)
15. Keiser, M.B., *Housing an Environment for*

- Living*, Macmillan PublishingCo. N.Y. 1978, p. 38.
16. 金在恩, 아파트에서의 어린이 성장과교육, 주택(42), 대한주택공사, 1981, pp.141~146.
 17. 金環姬, 주택환경이 아동의 性格形成에 미치는 영향, 주택(40), 대한주택공사, 1981, pp.59~64.
 18. Alden Speare. Jr., *Residential Satisfaction as an Intervening Variable in Residential Mobility*, Demography, Vol. 11, No. 2, May, 1974.
 19. Hole, V., *social Effects of Planned Rehousing*. Town and Planning Review, 30, 1959, 161-173.
 20. 小平 久, 住宅問題の動向, 家庭科教育(日本), 58卷 4號, 3月 臨時 增刊號, 1983, pp.100-103.
 21. 高明奎, 靑小年期的 家族關係의 發展에 관한 研究, 제주대학 논문집(인문사회과학편), 11집, 1979, p. 648.
 22. 張秉琳, 前揭書, p.143.
 23. 洪享沃, *op.cit.*, pp.127-134.
 24. 內田祥哉, *op.cit.*, p.278.
 25. Alden Speare. Jr., *op.cit.*, p.182.
 26. W. Michelson, *Long & Short Range Criteria for Housing Choice and Environmental Behavior*. Journal of Social Issues 36-3, 1980.
 27. 高明奎, *op.cit.*, p.648.
 28. 小平 久, *op.cit.*, p.100.
 29. 金環姬: 아동과 주택: 생태심리학적 측면에서 본 아동, 연세대 가정대학, 세미나 발표문 1979.
 30. Jon. Lang, Charles. Burnette, Walter. Moleski. David. Vachon, *Designing for human behavior: Architecture and the Behavioral Sciences*, McGrawhill, 1977, pp.11~13.
 31. 金在恩, 韓國家族의 心理,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74, p.170~172.
 32. 淺見雅子, 靑年の生活空間と個室, 日本家政學述誌, Vol. 27, No. 5, 1976, pp.389-390.
 33. 李連淑, 주거환경의 美學的 가치측정을 위한 代表的 어휘선정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2권 3호, 1984, pp.89-109.
 34. 鄭元植, 金豪權, 性格診斷檢査 檢査法 要綱, 서울, 코리안테스팅센터.